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한글날과 세종대왕

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 반포하신 날인 9월 상순의 끝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서기 1446년 10월 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며 한글날을 제정한 때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있던 1926년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한글이다. 한글은 글자 모양이 발음하는 입의 동작을 본떠 만든 가장 과학적인 소리글자다. 한글은 창제 당시는 28자였으나 지금은 닿소리글자 14자와 홀소리글자 10자로 24자를 쓰고 있으며 24자 글자로 모든 말과 소리를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소리글자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의도는 당시 국민이 한자가 어려워 글을 못 배워서 백성이 많아 이를 가엾게 생각하시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게 됐다. 그러나 사대주의 사상과 우리 것을 업신여기던 한글 반대론자도 있었으나, 한글은 세종대왕의 의도대로 우리글로 쓰게 됐고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돼 한글 창제 575돌을 맞이하게 된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국력이 커질수록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많아질 것이며 한글을 영문자처럼 자기 나라 글자로 이용할 나라도 생겨 날 것으로 본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서 그 업적이 많으며 가장 큰 업적은 한글 창제였다. 자기 나라의 말을 자기 나라 글자로 기록하는 나라가 드문데, 우리는 우리 말과 글자를 가진 자랑스러운 국가 민족이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소리글자로서 글자 수는 적으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돼 있으나 남북이 같은 말을 쓰고 한글을 쓰는 단일민족국가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세계 최고인 글자로 부각하려면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우리의 상심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과 발맞추어 확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배우기 쉬운 글자인 한글을 갖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글의 우수성을 모르고 있고 우리글을 읽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화 시대에 국외 이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외 교포 2세들이 우리말 우리글을 모르는 것은 우리 것을 천시 여기는 사대주의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깨우쳐야 할 문제다. 유대인은 2천 년을 흠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말과 탈무드 교훈을 지키고 있는데 비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한글을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는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며 우리말 바르게 하기도 병행해야 한다. 간판 글씨를 보면 외국에 온 기분이 들 정도다. 간판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거나 영어로 된 간판들이 있는데 우리 글로 된 간판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우리 말을 없애고 일본말을 쓰게 했으며 우리글인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일본 글자를 쓰게 해 우리말 우리글 말살 정책을 폈으나, 우리는 이에 굽히지 않고 한글날을 정하고 한글날 행사를 했으며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한글 보급으로 문맹 퇴치에 주력해 온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이것은 오직 세종대왕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의 덕택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사랑하고 활용하면서, 세종대왕의 얼을 가슴에 품고 세종대왕처럼 살겠다는 인생 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제575돌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바르게 쓰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해야 한다.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있다. 한글날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는 세종대왕이며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우리 민족을 문맹에서 벗어나 문화인을 만든 한글 창제다. 오늘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제일의 글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세계 여러 나라는 문자를 창제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만이 우리의 문자를 만든 한글날을 경축일로 정해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한글은 조선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표됐다. 한글날은 기록에 따라 세종

독자기고

### “차량 전담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박상진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장

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돼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 의무화돼 있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장 이민수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전광선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